

〈시인 할머니의 거짓 않는 자연〉

글 그림 황보출



자연에서 왔고



봄이 오니 새잎이 나오고
꽃망울도 맺었다.

내 눈하고 꽃눈하고 마주쳤다.
눈 인사를 했다.



왕 벌이 날아와서 호박꽃 꽃을 먹고



샛별처럼 날아가고 없네.



비를 맞고 잎이 윤기가 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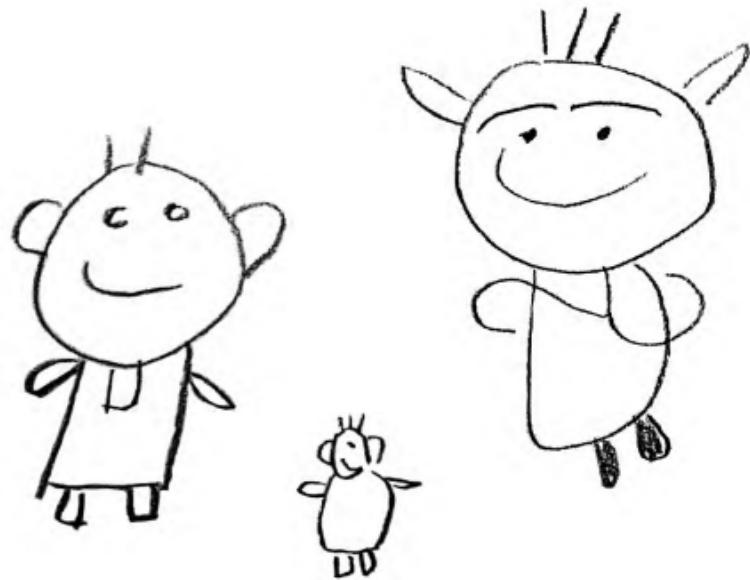
자연이 눈이 부셨다.



흙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이 살수가 없다.
고맙다.



계절은 거짓이 없다.



사람은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.

태풍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

저 산의 나무들 같이 살고 싶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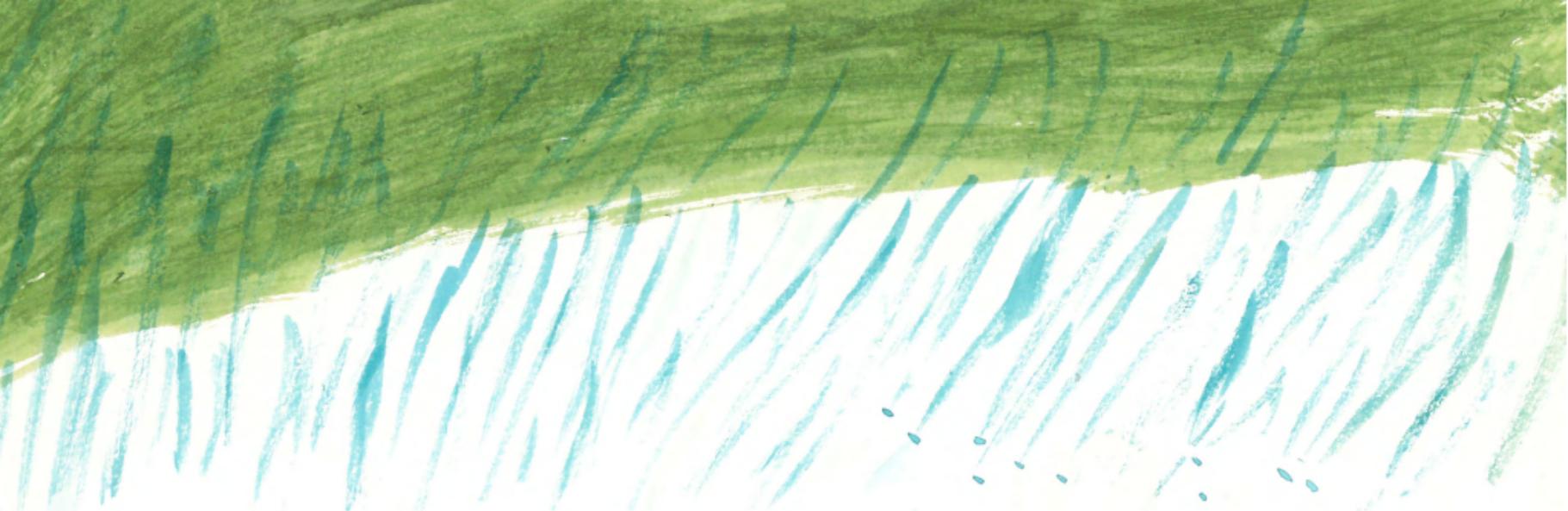
나도 자연처럼 살고 싶다.



가을 바람 불고

내 머리에 억새 씨앗 날아 왔네

내년 머리에 억새 꽃
새싹이 나올 것 같다



마음 조금 우울 할 때
자연만 보면 아무 생각도 없다.

모든 생명은 말이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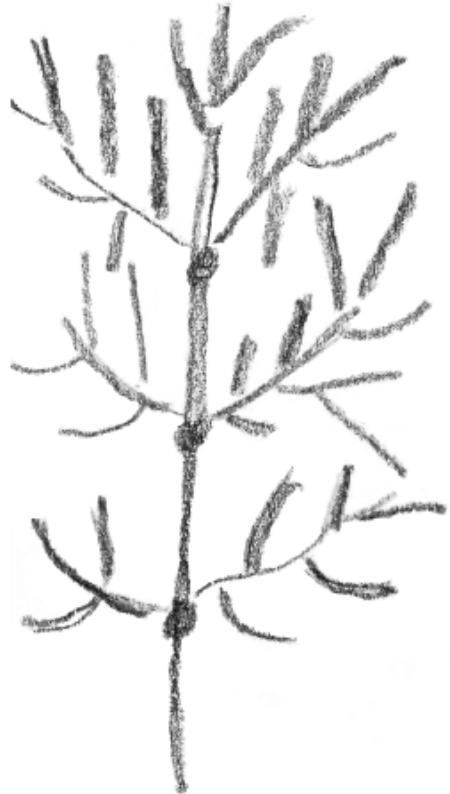




돌도 그냥 보지 않고 유심히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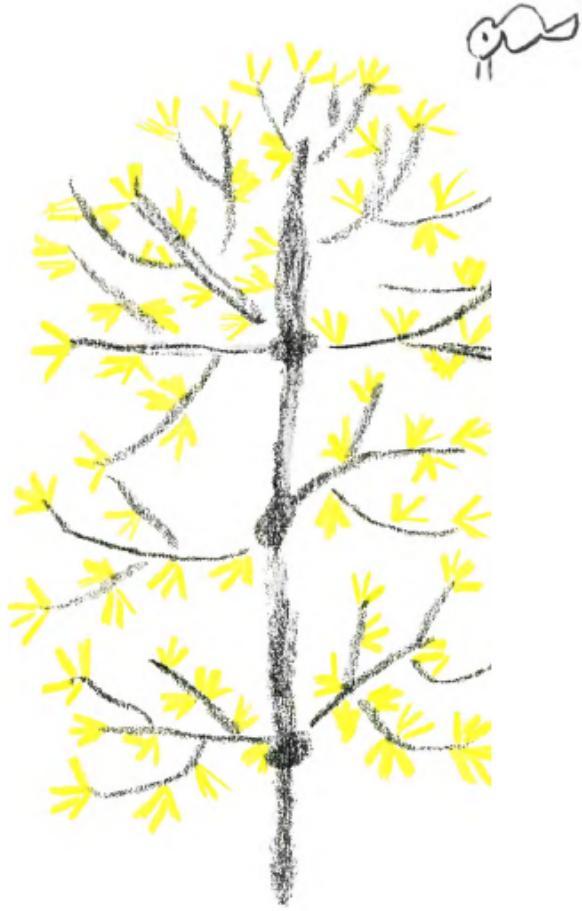


돌도 생명 있다.



나무 한그루 춥고 하니
추운 겨울 잠자고 깨어나

새싹이 나오고 귀엽다.





갈 때도 자연으로 갈텐데